

## 같은 소재라도 개성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책들 인기 기획과 일러스트, 보편화된 내용 독창적 전달이 성공 포인트

최근 있는 2005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특별히 세계인의 눈길을 끈 한국 어린이도서가 적지 않았다. \* 이는 향후 어린이도서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또 어린이도서의 세계화를 위해선 어떤 장점이나 특징을 갖춰야 하는지 가능케 하는 현상이다.

“한국 어린이책을 보고 있으면 김기덕 감독의 영화와 영화 속 색채가 떠오릅니다” 볼로냐아동도서전 라가치상 심사위원장인 Antonio Faeti 교수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담긴 세련된 화법으로 한국 어린이책의 인상을 전했다. “같은 소재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독특한 감각과 책에 사용된 색의 선택이 인상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Antonio Faeti 교수는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일러스트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런 경향과 달리 표현과 재료에서 전통적인 기법을 버리지 않고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그림책은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지런히 관람객 손 단

#### 《위터보이》와 《구름빵》

Antonio Faeti 교수의 말이 단순한 덕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이번 2005볼로냐아동도서전에 전시된 한국책 가운데 관람객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들이 적지 않은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인기를 끈 책은 아트북스의 《위터보이》 아이완 글·그림과 한솔교육의 《구름빵》 백희나 글·그림, 김형수 사진. 두 권의 책은 전시대에 놓일 틈 없이 부지런히 관람객들의 손을 탔다. 이는 향후 우리 어린이도서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트북스의 《위터보이》는 소년 ‘위터보이’의 방에

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책. “오래 숙고해도 좋을 상징적 철학적 내용과 신비로운 일러스트의 조화가 절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관 부스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독차지했다. 작년 8월에 출간된 책은 내용이 난해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어린이책, 성인책 구분 없이 좋은 책이라면 주저 없이 읽는 유럽인들의 구미에는 제격이었다. 외국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책의 각 페이지마다 원문을 번역한 메모지를 붙여 둔 출판사 측의 세심한 배려도 인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솔교육의 《구름빵》은 작가 백희나 씨가 2005볼로냐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가라는 입소문을 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름빵》은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고 공중에 몸이 뜬 아이들이 정체된 출근길에서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구름빵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책다운 천진난만한 내용과 함께 공을 들인 백씨만의 반입체 일러스트는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구름빵》을 본 한 관람객은 “올해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전 부스에서 인상적으로 본 책”이라며 “그림만 봐도 짐작되는 내용이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공예와 미술, 사진이 복합된 백희나 작가의 일러스트가 매력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위터보이》와 《구름빵》 두 권의 책은 관람객들의 구입요청도 줄을 이었다. 전시를 목적으로 가져온 책이라 한국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부지런히 달래야 한다는 후문이다.

● 표지와 재질 등에서 차별화된 디자인이 한국 어린이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본문 참조)

## 일러스트 돋보이는

### 전집물 쪽도 발길 이어져

전집물 가운데는 나무숲의 '어린이미술관' 시리즈가 관람객과 출판계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어린이미술관 시리즈'는 《조선을 그린 화가 김홍도》《새처럼 날고 싶은 화가 장욱진》《새로운 세계를 연 비디오예술가 백남준》 등 한국의 유명화가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펴낸 시리즈. 한국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부지런히 부스를 찾았다. '어린이미술관' 시리즈에 관심을 보인 한 관람객은 "한국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들이 많냐?"고 물으며 "한국 유명화가들의 삶과 작품을 어린이책 콘텐츠로 활용한 것이 인상적이다"라며 시리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교원의 '월드에버스토리즈' 시리즈와 '헬로우부키스' 시리즈, 여원미디어의 '탄탄세계테마동화' 시리즈도 관심을 끌었다. 교원의 '월드에버스토리즈' 시리즈와 여원미디어의 '탄탄세계테마동화'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어린이명작들을 한데 모은 전집. 명작의 내용이야 익히 아는 것이라, 대개의 관람객들은 시리즈로 꾸민 한국의 독특한 일러스트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했다. 한편 어린이그림책 전문기획사 썩크썩크의 부스에도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국내 최초로 어린이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썩크썩크는 부스를 작은 미술관으로 꾸며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어린이아트북을 선보였다.

## 한국도 이제

### 세계적인 인기작가 만들어야

어린이책 부분의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는 프랑스 및 영미권 부스는 관람객 및 출판관계자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에릭 바튀, 앤서니 브라운, 존 버닝햄 등 어린이책 유명작가들의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이 인기작가 고미 타로의 힘을 입어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었다.

마루벌 이명희 대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통한다고 하지만, 생각만큼 통하지 않는 것이 어린이책"이라며 "어린이들에게 보편화된 내용을 독창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조언했다. 도서전에 참가한 한 출판인은 "도서전 참가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계인에게 인기를 누리는 우리 작가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며 "세계적인 작가를 키워가는 것도 출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출판**

정리 박용두 기자

# 2005볼로니아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작가와 작품은 무엇?



《육촌형》박철민 일러스트레이터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이  
사 온 힘센 아이들과 대립하며 겪게 되는 갈등  
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책이다. 올해의 일  
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박철민 작가는 한지에  
먹과 펜을 이용한 동양화 기법으로 지난 옛 시  
골 마을의 정경과 분위기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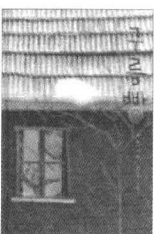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최숙희 일러스트레이터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 지도의 역사를 담아낸 책이  
다.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최숙희 작  
가는 따뜻하고도 정감어린 붓놀림으로 선사시  
대부터 현대까지 지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모  
습들을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나의 사직동》한성욱 일러스트레이터  
사직동에서 삼십 년이 넘게 살아온 작가가 사직  
동과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을 담아냈다. 올해  
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한성욱 작가는 실  
제 사직동 풍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진  
촬영한 뒤 연필과 수채화로 리터치 작업을 해,  
사진, 연필, 수채화의 다른 느낌을 독특하게 조  
화시켰다.



《동물원》이수지 일러스트레이터  
동물원에 놀러간 가족의 하루를 재미있게 담아  
냈다.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이수지  
작가는 색연필로 쓱쓱 그리고 칠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을 내보였다. 어른의 눈에 비친  
동물원은 회색빛으로 우울하게, 아이의 상상세  
계는 화려하고도 발랄하게 대비시킨 것이 인상  
적이다. 작년 볼로니아 아동도서전에서 주목받은  
책이다.



《구름빵》백희나 일러스트레이터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백희나 작가는  
이번 책에서 반입체 라는 독특한 양식을 내보  
였다. 캐릭터는 그려서 오려내고 방과 거실 등의  
공간은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어 구성했다. 이  
를 다시 사진으로 찍어 완성시킨 작업은 캔버스  
에 그려진 그림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용〉